

상처 입은 영혼에 건네는 차 한잔의 위로

『페퍼민트』
백은유 장편소설



▶ 들어가며

타인을 깊이 알기 어려운 시절이 왔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친해지면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예사였는데, TMI라는 말이 일상이 되면서 사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행위 자체가 몰상식한 짓이 되었다. 현실에서 우리는 보여 주고 싶은 면만 보여 주면서 관계를 맺는다.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 형성은 쉽지 않다.

그래서일까? 인물이 속마음을 드러내는 소설을 읽다 보면 깜짝깜짝 놀란다. 내가 이만큼이나 타인에 대해 알아도 되는 걸까? 타인의 고통을 정면으로 들여다보는 행위 자체는 낯설고 불편하다. 소설 읽기가 점점 더 어색해진다는 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횡설수설했다. 그렇다면 오늘날 소설 읽기의 가치는 더 커지는 것 아닐까? 소설 속 인물을 제대로 마주할 수 있다면 낯설고 새로운 경험으로 이것만 한 게 또 있을까 싶다. 그래서 문학을 다루는 수업 시간은 여전히 나에게 소중한 사명감까지 갖게 한다.

문학 첫 수업 시간에 퀴즈를 낸다. “문학을 한 글자로 바꾸면?” 난센스 퀴즈냐고 묻는 녀석도 있다. ‘문학 = 삶’이라고 필기를 해 준다. 학생들이 어리둥절하는 시간을 잠시 내버려 둔 후에 ‘문학 = (타인의) 삶’이라고 필기를 보충한다. 그리고 진지하게 말한다. 타인의 삶을 들여다볼 때에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타인의 삶을 함부로 단정하고 재단하지 말 것. 아주 작은 조각이라도 예의 주시 해서 볼 것. 특히 소설은 사건만 따라가지 말고, 시간과 공간과 사회를 함께 엮어서 보라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타인의 삶으로 다가가라고. 문학은 그래서 어려운 것이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한 학기 한 권 읽기로 독서 나눔 활동을 하면서 인물의 내면 심리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 할 때에는 마음대로 상상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인물의 내면이 드러난 단서를 작품 속에서 찾아내라고. 그러니 독서 나눔은 서로 쳐다보면서 하지 말고, 책에 밀줄 그어가면서 하라고.

국어국문학을 전공한 내가 임용고시 준비로 당분간 모임에 불참하겠다고 말했을 때, ‘너 같은 애가 학교에 가면 물 흐른다.’라며 진담 섞인 농담을 들었다. 부모님과 선생님을 속여 만화방이나 오락실, 롤러스케이팅장을 누볐던 나의 일탈을 함께한 친구들에게 ‘나 같은 선생도 만나 보면 좋을 수도 있지.’라는 말로 응수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내 입장에서만 말하는 나의 철없는 솔직함을 겨냥한 것일 수도 있겠다 싶다.

하지만 학교 현장은 나를 철들게 했고, 인간다운 인간으로 성장시켰다. 그 원천에 바로 학생들과

문학이 있다. 문학을 전공했고 국어 교사가 되어서도 솔직히 문학을 제대로 감상하지 못했다고 고백한다. 문학 교육에 마음과 시간을 쏟은 어느 순간 이후 비로소 제대로 문학의 세례를 받았다. 특히 소설 읽기는 나에게 아이들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힘을 주었다. (솔직히 다른 교과에 비해 국어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마음 조각을 인지하는 능력이 좀 높다.) 인물의 내면과 상황을 알아보는 감각이 점점 강화되면서 스물에서 서른 명 정도의 소설 속 주인공과 일 년을 함께 지내게 된 것이다.

경력 교사가 된다는 건 학교에서 다양한 인물 군상을 만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동안 힘겨운 상황을 버틴 학생들 중 다수는 몰라보고 지나쳤을 것이고, 마음을 다했던 어떤 아이들은 단단한 어른으로 살아가며 소식을 전해 준다. 나의 별것 아닌 응원이 힘이 되었다고 말해 준다. 오늘도 소설 『페퍼민트』에서 별것 아닌 응원법을 배운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소설 읽는 법을 더 제대로 알려 주고 싶은가 보다.

책 소개

어린 시절 이웃사촌으로 친하게 지냈던 시안과 해원이 헤어진 지 육 년 만에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감염병 슈퍼 전파자 N번 가족이 된 해원이네가 지방으로 이사 가면서 시안은 하나뿐인 친구를 잃었다. 감염되어도 대부분은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죽거나 후유증을 갖게 되는 몇 %에 속한 시안의 엄마는 육 년째 식물인간이다.

고등학교 3학년인 두 주인공을 초침 화자로 교차하는 소설이라 독자는 시안과 해원의 속내를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시안은 다른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다. 심지어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는 엄마에게조차 진심을 말하게 될까 봐 조심한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아파트에 감염자가 나오면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방송이 나오고,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다 내려다보면서 감염자들을 비난했다. 시간이 지나 되돌아보면 감염자들의 잘못이 아니었는데, 처음 맞이하는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였는데. 소설에서는 코로나19와 비슷한 프록시모 바이러스 감염병 사태가 전 세계를 휩쓴다. 감염자 N번으로 불리며 끔찍한 시간을 지나는 동안 영혼을 다친 해원은 지원으로 개명까지 했다. 과거를 숨기려다 보니 혹시 실수하게 될까 두려워 말수가 줄고 소심해진 해원은 여느 고3처럼 입시와 연애가 고민이다.

해원이 겪는 이별이나 시험마저 질투한 시안은 해원을 집으로 초대하고 엄마에게도 숨겨 온 진심을 말한다.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간병 생활에 시안과 아빠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물론 『폐 퍼민트』를 다 읽으면 그들의 선택을 알 수 있다.

『유원』의 작가 백은유의 소설이라 곳곳에 심어져 있을 문장과 장치 들에 대해 기대하고 읽었다. 독자의 기대감은 작가에게는 부담이었으나, 독자에게는 설렘이다. 소설의 잔향에 허우적거리다가 표지 그림 「어느 여름」을 펼쳐본다. 『유원』에서 「세 친구」를 발견했을 때의 소름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햇빛과 그늘, 어른과 아이, 그 사이의 거리감까지 기가 막히게 소설과 어우러지며 감동을 배가한다. 감염병이 활취고 떠난 폐허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작가님의 이름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향으로 감싸는 소설이다.

엮어 읽기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김승섭 교수의 『아픔이 길이 되려면』(동아시아 2017)과 『우리 몸이 세계라면』(동아시아 2018)을 추천한다. 질병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보건학자의 연구와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책들이다. 특히 후자는 천여 편의 논문과 삼백여 편의 문헌을 근거 삼아 이야기를 전개한다. 통계 자료에 잡히는 숫자는 누군가의 목숨값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 준다.

불과 삼 년 전인 팬데믹 초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하루 종일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 N번 감염자의 나이, 직업, 거주지, 동선까지 실시간 전송했다. 감염자 대부분이 완전하게 회복될 때 누군가는 죽었다. 코로나19와 공생하게 된 지금 그들은 우리 뇌리에서 사라지고, 통계 수치로 무미건조하게 남았다.

상처와 고통에 온기를 더해 희망의 불씨를 살린 백은유 작가의 『페퍼민트』를 읽었으니, 이제는 과학적 시선으로 불씨의 정체를 확인할 시간이다. 서로의 존재가 연결될수록 건강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을 드러내는 김승섭 교수의 책에서 상처와 고통을 회복하는 불씨를 찾게 될 것이다.

수업의 초점

1. 상처 입은 영혼을 알아보는 방법을 배워 보자.

시안과 해원은 소설 속 인물이지만 어딘가에 실재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누군가는 시안이네와 해원이네 가족보다 더한 감염병 후유증을 떠안고 살아가고 있다. 숨고 숨겨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상처가 심한 영혼들은 존재한다. 시안은 해원에게 숨기고, 해원은 친구들에게 숨기고, 부모는 자식에게 숨긴다.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아가는 그들의 행동을 살펴보면서 상처 입은 영혼이 행동하는 방식을 알아보자.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현실의 그들을 알아봐 주자.

2. 상처와 두려움에 주눅 들지 않고 회복하는 법을 배워 보자.

『페퍼민트』의 주인공 시안과 해원이 떠안고 있는 절망과 상처는 점점 회복되어 간다. 그들이 혼돈을 통과해 성장하는 과정에서 회복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시안은 엄마가 좋아하던 페퍼민트 차를 마시며 스스로를 존중하고 위로한다. 자기 자신을 소중하고 특별히 대우해 주는 의식을 각자 소개하고 공유해 보자.

☰ 차시별 활동 계획

우선 수행 평가 배점과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6차시 혹은 8차시 정도로 계획한다. 모두 같은 소설을 읽게 할 것인지, 세 권 정도 교사가 추천하고 학생이 선택하여 읽을 것인지 정한다. 같은 책으로 활동한다면 함께 발견하기, 질문하기, 쟁점 토론으로 활동을 진행한다. 선택해서 읽는다면 같은 책을 선택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모둠을 이루어 독서 나눔하고 개인별로 논술을 작성한다. 활동 시간을 더 배정할 수 있다면 모둠 발표 활동을 계획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결석자용 활동지를 추가 제작하여 대비했다. 녹음 파일을 결석자가 활용하고 제출하도록 하여 번거로운 추가 평가를 피하도록 했다.)

차시	활동		형태	활동지		결석자용			
1	읽기 전	활동의 흐름과 수행 평가 기준 안내 표지와 제목 보고 내용 예측하기	개인	①		⑧			
	읽기 중	인물 정보 모으기, 인상 깊은 구절 메모하기							
인물 정보 모으기, 인상 깊은 구절 메모하기									
인상 깊은 구절 메모하기, 주제 찾기									
4	독서 나눔 준비	질문, 쟁점 토론 근거 마련	②	⑤	-				
5	읽기 후	독서 나눔	독서 나눔, 모둠 쟁점 토론	모둠	③	⑥	③-1	⑥-1	
6		독서 나눔	모둠 발표, 전체 쟁점 토론	개인	전체	④	⑦	-	

☰ 준비 단계

1. [학년 초] '1학기 소설 읽기' 수행 평가 기획

1학기에는 '장편소설 한 권 읽기', 2학기에는 '비소설 한 권 읽기'로 기획한다. 소설은 세 권을 정하되 국내 고전, 청소년소설, 외국 고전 등 스펙트럼을 넓게 선정하여 학생 개개인의 독서 수준과 성향에 맞게 선택하도록 한다.

지난 몇 년간 다뤄 본 소설 중에 『데미안』 『멋진 신세계』 『수상한 진흙』 『유원』 『결에 있다는 것』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지구 끝의 온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은 좋은 독서 나눔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약속』같은 추리소설은 읽기는 재미있으나 독서 나눔의 소재로는 부적합했다. 역사소설 『체공녀 강주룡』은 전기문 같은 감상으로 이어져서 천편일률적인 독서 나눔이 되었다. 섬세하고 재미있으나 좀 분량이 많았던 『소년을 위로해 줘』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읽지 못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2. [일주일 전] 직접 만지고 스스로 선택하게 하기. 종이책 구입 문자나 대출 확인하기

지필 고사 전 자습하는 시간을 활용하여 지필 고사 직후 실시하는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행 평가의 의의와 활동 흐름을 안내한다.

3~4권의 책을 복도에 전시해 놓고, 3~4명씩 나가서 직접 고르게 한다. 비소설 책 고르는 방법(표지, 저자 소개, 저자의 말(프롤로그), 차례까지 읽기)을 지도한다.

명렬표에 자신이 고른 책을 직접 쓰도록 한다. 관계가 불편해진 학급원이 있는 경우, 다른 친구들이 선택한 목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한 모습을 자연스럽게 이룰 수 있다. 3~4명 이상의 선택을 받지 못한 책은 활동에서 제외하고 다른 책을 선택하도록 안내한다.

책을 선택하자마자 구입 혹은 대출을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허가한다. 휴대전화로 주문(학부모님께 문자, 인터넷 주문, 대출 예약)한 것을 바로 검사한다.

전자책 구입 의사를 표현하는 학생에게는, 태블릿이나 노트북 등 개인이 관리해야 하는 전자기기가 분실, 파손될 위험이 있으며, 기기 사용에 따른 파생적 문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가급적 종이책을 구매하도록 권유한다. 종이책을 직접 비교 검토한 후, 구입 또는 대출하는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활동이 끝난 후에 다른 책을 고른 친구와 교환할 수도 있다.

3. [참고] 수업 일정표

	1차시	2차시	3차시	4차시
4월 4주차	봉산탈춤	봉산탈춤	자습	1학기 소설 읽기 안내 및 준비
4월 5주차	1학기 1차 지필평가 (4/26 ~ 4/29)			
5월 1주차	지필평가 논술형 확인 읽기 1차시	읽기 2차시	어린이날(5/5)	읽기 3차시
5월 2주차	읽기 4차시	독서 나눔 준비	독서 나눔	독서 논술

●●● 읽기 중 활동

-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은 구절을 메모하며 읽도록 지도한다.
- 활동지 기록을 통해 인물 정보를 모으고 책의 주제를 찾으며 읽기 후 활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활동지 ①

1학기 소설 읽기

책 읽는 사람	()학년 ()반 ()번 이름 ()				
책 제목	페퍼민트	작가	백은유	출판사	창비
		번역가			

날짜, 교시	오늘 뽑은 구절	교사 확인
5월 일 교시 요일	(83 면) 그래픽이지만 그래도 햇볕 아래 서니 땀에 젖은 축축한 영혼이 마르는 느낌이었다. 내 안에 있는 그들이 소독되는 기분, 그러나 모두 '느낌'일 뿐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1차시
5월 일 교시 요일	(100 면) 해원의 슬픔까지 천진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해원이 겪는 이별이나 시험마저 질투하는 내가 싫었다. 문득 더는 속이고 싶지 않아졌다. 무엇을 위해 이제껏 숨겼는지 나조차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감수하는 불편들이 불합리하게 느껴졌다.	2차시
5월 일 교시 요일	(212 면) 그때, 누군가의 숨결 같은 바람이 등을 떠밀었고 나는 나도 모르게 그들을 벗어나 한걸음, 햇볕이 있는 곳으로 나아갔다.	3차시

●●● 읽기 후 활동

- 개인별로 독서 나눔 질문과 주제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진 뒤 모둠 토론을 진행한다.
- 모둠별로 선택 도서가 다를 경우 활동지 ②, ③, ④를 참고하고, 모두 같은 도서로 수업을 진행할 경우 활동지 ⑤, ⑥, ⑦을 참고한다.
- 쟁점 토론을 마친 뒤에는 개인별 논술을 작성한다.

활동지 ②

1학기 소설 독서 나눔 준비

이 책에 별점을 매긴다면?	☆☆☆☆☆	이유 (좋거나 아쉬운 점)	
<p>줄거리 요약하기 또는 인물 관계도 그리기</p>			
<p>내가 생각하는 작가의 메시지(=주제) 그 이유</p>	<p>예) 자신의 기준에서 함부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려는 것은 위험하다. 사람은 타인의 전부를 볼 수 없다. 일부의 일부의 일부만 보고, 전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p> <p>예) 그들에 응크리고 있는 사람을 알아보고 응원하는 방법을 알려 주는 것 같다. 따스한 숨결 정도로 그 뒤에서 있어 주는 것.</p>		
<p>기억에 남는 문장 또는 가장 인상 깊은 부분 그 이유</p>	<p>(98 면) 문득, 엄마도 엄마의 좁은 몸을 견디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 엄마는 고여 있는 것 같다가도 우리 삶으로 자꾸 흘러넘친다. : 식물인간이 된 엄마의 상태와 엄마의 존엄성을 느끼게 하는 문장이었다. 식물인간의 상태를 ‘고여 있다가 흘러넘친다’고 표현한 것이 간병 가족의 일상과 힘듦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멋지다.</p>		

	질문	독서 나눔 전에 먼저 생각해 본 나의 답변
인물에게 질문하기	예) 고단한 시안이 위로를 받는 순간은 언제, 누구에게, 왜?	예) 최선희 선생님은 시안을 가여워하지 않고, 필요 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엄마에게 말을 건다. 최선희 선생님 역시 장애가 있는 아들을 오래 간병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시안 가족에게 충분히 공감하고 있었나 보다.
소설의 전체적인 구조나 작가에게 질문하기	예) 작가는 왜 시안과 해원의 시점을 교차하는 형태로 구성했을까? 예) 작가는 왜 제목을 '페퍼민트'라고 지은 걸까?	예) 누군가에 대해 안다는 것은 일부의 일부만 안다는 말인데, 상대는 다 안다고 착각한다. 시점 교차를 통해 직접 확인시켜 주기 위해 교차 구성한 것 같다. 예) 엄마가 좋아하던 '페퍼민트' 차를 마시면서 시안이 위로 받고 존중받는다. 이를 통해 상처와 고통을 회복할 수 있는 작은 희망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직접 또는 간접) 내 경험과 관련 있는 질문하기	예) 페퍼민트 차를 마시는 것으로 불안한 상상을 다스리는 시안처럼 안정감을 찾게 도와주는 맛이나 향기, 혹은 의미 있는 물건이 있어? 예)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숨긴 경험이 있거나, 반대로 누군가가 거짓말하는 것을 본 일이 있는가? 왜 속였을까?	예) 내가 좋아하는 향을 피워. 가느다란 연기가 구불구불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는 기분이야. 그리고 일기를 써. 예) 아빠랑 친하다고 자랑했던 친구가 19살이 되면서 털어놓았어.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다고. 자신을 동정하거나 불편해할 것 같아서 말 안 했대. 살아계실 때 아빠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한 거니까 거짓말은 아니래. 이제 자신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을 나이가 된 것 같아서 말해 주는 거라고 하더라. 그 친구를 짚순이라 욕했는데, 그 순간 다 이해되더라.

※ 질문+답변 모두 작성, 질문만 독서 나눔 모둠별 SNS에 올리기

교사 확인	교사 확인
4차시 정리	4차시 질문

1학기 소설 독서 나눔

()학년 ()반 ()번 이름 ()	책 제목
모둠원	사회자

1. [모두][녹음] 이름, 기억에 남는 문장이나 부분과 그 이유 말하기

2. [사회자] 줄거리 관련 단순 질문 수집하기,
줄거리 요약(종이에 쓰거나 그리면서) 주도하기

3. [SNS 보면서] 다들 질문 순서 정하기

()의 질문	
()의 질문	
()의 질문	
()의 질문	교사 확인

<독서 나눔 유의사항>

가. 녹음은 되도록 안드로이드폰으로,
파일은 3~4개로 나누어 생성

나. 파일 제목은 조장 이름+숫자
ex) 홍길동1,2,3

다. 녹음 파일은 활동 직후,
구글클래스룸에 올릴 것

라. 질문 얼른 정하고,
생각 나눔에 치중하기.

마. 질문에 대한 생각은 질문을 낸 사람
부터 시작.

바. 5분 전, 독서 나눔 마무리!
(활동지 작성, 클래스룸에 파일
올리는 시간 확보)

4. [녹음] 질문에 대한 답변 나누기

5. [나눔 후] 친구(본인 포함)들에게,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한 칸은 무응답 허용합니다.

책의 내용을 가장 자세히 이해하고 온 친구 ()야, 고마워. () 질문에 대해 ()해 줘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
사회 말아서 이끌어준 ()야, () 부분이 좋았어.
()야, 네가 ()해 준 덕분에 독서나눔 분위기가 좋았어.
질문을 많이 한 ()야, 네 덕분에 ()했어.
이 책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해준 ()야, ()라는 질문 던져줘서 고마워.
()야, () 점이 좀 아쉽다.

교사 확인 5차시 나눔평가

활동지 ③-1

독서 나눔 결석자 작성용

※ 구글클래스룸에 있는 녹음 파일을 들으며 요약하기

나	()학년 ()반 ()번 이름 ()	책 제목	
음성파일 속 친구들 이름			

[기억에 남는 문장이나 부분]

이름	기억에 남는 문장이나 부분	선정 이유

[질문과 대답]

질문1		질문2	
답변		답변	
질문3		가장 인상적인 질문과 대답은?	
답변		질문	
		대답	

『페퍼민트』 독후 활동 준비

교사 확인	교사 확인
4차시	4차시
주제, 문장	질문, 이유

<p>내가 생각하는 작가의 메시지(=주제)</p>	<p>예) 자신의 기준에서 함부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려는 것은 위험하다. 사람은 타인의 전부를 볼 수 없다. 일부의 일부만 보고, 전부 안다고 착각한다.</p>
<p>그 이유</p>	<p>예) 시안이 엄마를 간병하고 돌본다는 것은 엄마가 어린 시안을 먹이고 입히고 씻긴 과거와 같은 것. 인간은 탄생과 죽음에 걸쳐, 누군가의 돌봄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p>
<p>상처 입은 영혼이 행동하는 방식 발견하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짓말하기 (16면) “회사에 일이 좀 많아.” 아빠는 내 눈을 보지 않고 말했다. (50면) 전부 꾸며서 대답했다. 나는 공부를 잘하지는 않지만 입시 스트레스는 적당히 받고, 학교 친구들과의 흔한 갈등에 머리가 아프고, 유명한 학원에 운 좋게 들어갔지만 효과는 크게 보지 못한 고3이 되었다. 얼버무리기 (65면) “너 시험 잘 봤어?” 시안은 잠깐 눈을 굴리더니, 글썽, 하며 얼버무렸다. 숨기기 (69면) 뭔가를 숨기려다 보니 혹시나 실수를 하게 될까 두려워 말수가 줄고 소심해졌다. 강박적으로 과거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해원을 조용하고 우유부단한 아이로 알고 있었다.
<p>시안이 두려움에 주눅 들지 않고 회복하는 방법 발견하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슬픔 나누기 (157면) 나도 모르는 새 슬픔을 최선희 선생님과 나누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덕분에 나는 아주 조금 가벼워졌는지도. 선의를 믿는 마음 갖기 (210면) 더할 나위 없이 엄마를 소중히 대해 줄 사람이 있을 거라고, 최선희 선생님의 그런 자신감과 선의를 믿는 마음을 믿어 보기로 했다. 엄마가 좋아하던 차 마시기 (211면) 여전히 나를 다그치는 목소리들이 따라붙었지만 나는 페퍼민트 차를 마시며 내 안에 자욱하게 깔린 상상을 다스렸다.
<p>인상적인 문장이나 부분</p>	<p>(212면) 그때, 누군가의 숨결 같은 바람이 등을 떠밀었고 나는 나도 모르게 그늘을 벗어나 한걸음, 햇볕이 있는 곳으로 나아갔다.</p>
<p>그 이유</p>	<p>소설의 맨 마지막 문장이다. 그늘에 웅크리고 있는 시안이 스스로 햇볕이 있는 곳으로 이동할 힘을 내도록 하는 것은 거대한 힘이 아니라 따스하지만 가벼운 누군가가 관심과 응원이라는 작가의 생각에 동의한다. 나도 모르게 몽클해져서, 이 문장을 다시 천천히 음미했다.</p>

<p>나의 질문 ()의 대답</p>	<p>고단한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p>	<p>최선희 선생님은 시안을 가여워하지 않고, 필요 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엄마에게 말을 건다.(90면) 최선희 선생님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며, 듣는 사람도 안심하게 만드는 목소리로 말한다.(155면)</p>
<p>()의 질문 나의 대답</p>	<p>숨기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은 다른 걸까? 거짓말의 정의는 무엇일까? 거짓말하는 것은 나쁜 것인가?</p>	<p>숨기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은 소극적, 적극적 정도 차이라고 생각한다. 거짓말은 상상을 사실처럼 말하는 것인 것 같다. 시안이 평범한 고3처럼 입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거짓말하는 부분은 시안의 바람이고 상상이니까.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거짓말은 나쁘다.</p>
<p>쟁점 토론</p>	<p>소생 가능성 없는 상태의 식물인간이 된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아내가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지켜 주고 싶다. - 소극적 안락사 찬성</p>	<p>이유와 근거 마련하기</p>
	<p>인공호흡과 영양 공급을 계속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식물인간이라 하더라도 숨지게 내버려 두는 것은 살인이다. - 소극적 안락사 반대</p>	<p>이유와 근거 마련하기</p>

활동지 ⑥

『페퍼민트』 독후 활동

교사 확인	교사 확인
5차시	5차시
독서 나눔	쟁점 토론

모둠원	사회자 (조장)
-----	----------

1. [녹음] 이름, 주제, 발견하기, 기억에 남는 문장이나 부분과 이유 말하기

2. 질문 순서 정하기

()의 질문	
()의 질문	
()의 질문	
()의 질문	

〈녹음 유의사항〉

- 가. [녹음] 표시만 녹음.
- 나. 파일은 2~4개로 나누어 생성
- 다. 파일 제목은 조장 이름+숫자
- 라. 활동 직후, 구글클래스룸에 올릴 것
- 마. 활동지 ⑤ 비워둔 부분 작성 완료할 것.

3. [녹음] 질문에 대한 답변 나누기

4. 앞장(활동지 ⑤)에 가장 마음에 드는 대답, 우리 모둠 대표 질문에 대한 대답 작성하기

5. 쟁점 토론 후 모듬의 (찬성 / 반대) 입장 정하기

6. 우리 모듬에서 선정한 주제, 인상적인 문장이나 부분, 질문과 대답, 쟁점 토론 입장 정하기

7. 발표 역할 분배하기

우리 모듬이 선정한 주제 그 이유		
인상적인 문장이나 부분 그 이유	(면)	
발견하기	(면)	
질문/대답		
쟁점 토론 입장과 근거		

활동지 ⑥-1

독서 나눔 결석자 작성용

※ 구글클래스룸에 있는 녹음 파일을 들으며 요약하기

나	()학년 ()반 ()번 이름 ()	결석 사유	
음성파일 속 친구들 이름			

[주제, 기억에 남는 문장이나 부분]

이름	상처 입은 영혼의 행동	상처를 회복하는 방법	기억에 남는 문장이나 부분

[질문과 대답]

질문1		질문2	
답변		답변	
질문3		가장 인상적인 질문과 대답은?	
답변		질문	
		대답	
쟁점 토론에 대한 나의 의견			

활동지 ⑦

발표 및 쟁점 토론, 최종 감상

교사 확인	교사 확인
6차시 듣기	6차시 최종 감상

[다른 모듈의 발표 듣기]

모듈 조장	발표 내용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

[쟁점 토론에 참여한 학생의 이름과 근거]

찬성		반대	

최종 감상(읽거나 들은 것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

